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기도서 321면 (C해)

제1독서: 창세 14, 18-20
 제2독서: I고린 11, 23-26
 복음: 루가 9, 11b-17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예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루가 9, 16).

□ 강론



당신은 어느 편에?

김기수 신부

인간의 기본조건을 볼 때 먹고 산다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어찌보면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임은 틀림없으리라. 하지만 현 사회의 구조를 볼 때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악해도 굶주리는 사람은 굶주리고 반면에 배부른 사람은 날로 배가 부르게 되는 부조리가 개판올 치는 세상이니—

그래서 삶의 비참의 구체적인 실례를 들지 않아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우리는 보고 느끼고 있다. 더욱 서글픈 현상은 하느님이 주신 고유하고 기본적인 양식을 마비시키고 팔아넘기면서까지 온갖 부정을 자행하는 행위가 만연되어 있으니— 이런 세상을 볼 때 한 순간의 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육신의 삶을 위한 양식을 얻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때로는 악까지 범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빵을 얻기 위해 온갖 정력을 쏟지만 끝없는 영생을 위한 영혼을 위하여 깊은 애착과 무한한 사랑을 가지지 못함은 무슨 연유일까? 실질적인 배부름을 느낄 수 없어서일까? 아니면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일까? 어쩌든 영적인 굶주림과 허덕임에는 별로 몸부림치면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느낄 수 없으니—

나의 삶의 모습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반성해 보자. “육신의 빵과 영혼의 빵 중에서 어느 편에 더 애착을 가지고 정열을 쏟고 있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느 편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영혼의 빵을 모시는 미사의 핵심인 성찬에 얼마나 준비를 하며, 경건한 자세로 임하였는지를—”

그리스도는 무죄하게 온갖 쓰레기같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 생명을 내놓으시고,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우리는 그 몸과 피를 모시는 것이 성체성사이다. 그래서 예수의 몸과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보약이다. 그러므로 성체를 영하는데 등한시하는 것은 영혼의 보약을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며 하느님을 만나기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영혼의 양식을 모시지 않는자. 어찌 그 영혼이 건강하고 병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영혼의 치유를 위해, 하느님을 만나뵙기 위해 필요한 양식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자주 모시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요한 6, 51). (복자 주임신부)



월남이 주는 교훈(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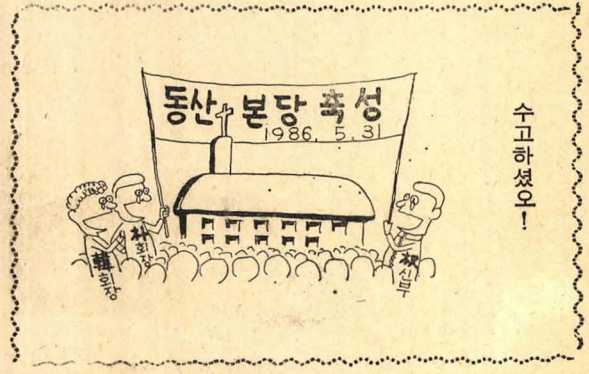
동산촌 방면에서 동양아파트 앞을 지나는 시내버스가 있다. 이 버스는 금암동 로터리에서 삼양사 쪽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운전기사의 착각(부주의?)으로 그냥 서중학교 앞으로 빠지기도 한다. 이때에 승객이 기사에게 코스가 틀렸음을 지적하면,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아이구 미안합니다.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라고는 헛들을 돌린다. 그런가 하면 어떤 기사는 “별 수 없으니 그냥 잡시다” 하고서 자기 뜻대로 운전 을 하고 만다.

출근길에 앞에 소개한 모습을 지닌 기사를 만나면 하루종일 기분이 좋다. 그리고 대개 이런 기사는 일깨워준 승객이 내릴 때에도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 모습의 기사는 대개 인상까지 쓴다. 조금은 아니꼽다는 투로. 이런 때에는 돈내고 바보가 된 기분이다.

시국이 시끄러울 때마다 텔레비전이나 몇몇의 소위 유명인사들은 월남 패망의 예를 들어 경고한다. “조용히 하라”고. 민주화나 인권을 부르짖던 대학생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지극히 어떠한 고초를 겪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말이다. 민주화나 종교의 자유는 고사하고 생존의 자유마저 빼앗겼다고 경고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다. 바른 코스를 가르쳐 주었는데도 덤배로(도리어) 인상이나 쓰는 덜된 기사를 만난 느낌이 들어서.

입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우화가 있다. 그러나 사실 귀가 큰 것이 흥될 것은 하나도 없다. 누구의 귀나 커야 한다. 특히 정치 지도자의 귀는 커야 한다.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바른길로 백성들을 안내해야 한다. 그러면 월남 패망의 비극같은 일은 없다. 이것이 소위 이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에게 목청높여 들려주고 싶은 소리다.

숲정이 산책



수고하셨어요!

성체와 성혈대축일

성체란?

성체(Eucharistia)란 “감사”를 뜻하는 것으로 성부께서 것처럼 비상한 개입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신데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들에게 돌리시며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계약의 피다.” (마태오 26, 26~28). 이것이 성체다. 기적중의 기적인 것이다.



과 피가 된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빠스카를 거행하는 것, 즉 빠스카를 다시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성체성사는 그리스도의 참된 빠스카, 곧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존재의 새로운 단계인 성부 오른편에 영광스럽게 앉아계시는 그리스도와 통공하게 하는 성사이다. 그러므로 성체를 받아 모심은 현세에서 이미 그의 영광스러운 생명, 곧 그가 성부와 더불어 이루는 통공에 우리가 참여함을 뜻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요한 6, 56~57).

성체성사는,

신앙생활의 으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성사다. 그 이유는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미사성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한 신비를 재현하고 현실화하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성체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충만한 은총을 받게 되어 장차 우리가 받을 구원에 미리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성 아타나시오는 “그리스도의 몸

—그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서 산다— 이것은 곧 예수님(빵)을 먹는 인간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치이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가득한 생명, 곧 성부께로부터 예수께로 오는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리하여 인간은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된다.

□성서교실 ④

지금 저희에게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 마리 밖에 없습니다 (루가 9: 13).

「5천명의 빵의 기적」은 한편으로 「밀은 사람은 배고프지 않다」는 것을 일러주는데, 이 「기적」에 담겨 있는 고매한 진리는 참으로 많다고 보는 것이다. 이 중에서 특별히 「빵의 증가」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하고자 한다.

5천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만큼 많은 빵은 「무」(無)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가 증가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라고 하는 종(種)과 자본(資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요한 2: 1~11)도 이와같은 것이었다. 「무」(無)에서 포도주가 나온 것이 아니고, 물이 변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느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신앙」을 창조하지는 않았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겨자씨만한 신앙이라도 참으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당신의 제단에 바칠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바칠 때 하느님은 이것을 번질시여 증가하시는 것이다. 5개의 빵이 5천명의 몫이 되었고, 5만명의 몫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인 것이다.

「기적」의 과정에 있어서 예수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 또한 이것은 5천명의 빵의 기적의 「중심점」인 것이다. 모든 「힘」(力)은 하느님께 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그것이 가납될 때 하느님은 「도움」을 보내시는 것이다.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야훼에게서 나의 구원은 오는구나!」(시 121: 1~2). 이때 「물」이 「술」이 되고, 5개 빵이 산더미같이 증가되는 것이다.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찬인 것이다. 여기에 그리스찬 생활의 「활력」이 있는 것이다.



☆ 대입 종합반 · 단과반
강사진이 가장 강한 학원! (병난방시설 완비)

순정영학원

조흥은행 앞 이 행 자(베로니카)

☎ 82-3537

□개업 김안과의원

부설 :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렌즈

원장 김호열 · 전은주(베로니카)

진주 코야백화점 옆 · 중앙성당 앞

전화 74-3020



교 구 소 식

- ☆ **축! 견진: 영등동 천주교회 8일 공식미사 중, 주례-박정일 주교님**
- 1. **이리 기독교방송 가톨릭시간안내: 매일 밤 12시30분, 금주 방송담당-양경배 신부님**
- 2. **전주교구 교리교사 단체체육대회: 6일 오전 9시30분, 장소-성심여중·고 운동장**
준비물-간편한 운동복 차림, 모든 교사 전원 참석 바랍니다
- 3. **전주교구 울뜨레아: 6일 오전 10시, 장소-전주 해성중·고 강당**
- 4. **성모의 푸름군대 피정: 5일 오전 10시~16시, 장소-덕진천주교회**
강사-김봉희 신부님·양경배 신부님, 준비물-미사도구·도시락
- 5. **6월중 균중후원회 릴레이미사: 14일 오후 3시, 장소-국군묘지**
- 6. **수녀연합회 정기총회: 9일로 연기합니다**
- 7. **레지오 간부교육: 28일 14시~29일 16시, 장소-광주 명상의집**
참석대상-간부 또는 후보자 90명(선착순), 참가비-8천원(교통비 4천원 포함)
참가자 보고는 6월 10일까지 해주세요
- 8. **성서 40주간 강의 속개: "성서 40주간" 4일, 5일부터 계속합니다**
- 9. **본당 사목회 분과위원장 교육: 8일 오후 2시~6시, 장소-가톨릭센터**
참가비-1인당 3천원(자료 제공), 참가대상-사회복지, 구역, 홍보, 애령분과
- ※ **다음주일은 교구에서 파견한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헌금 주일입니다. 잊지말고 정성껏 준비합시다**

월간 농촌사목지 「주님의 날」 6월호(제15호) 안내

「주님의 날」 6월호는 그리스도께 바치는 6월의 기도, 농촌신자들에게 보내는 사제의 말씀, 신자가정의 생활이야기, 예수성심성월에 관한 교리, 사도 베드로 성인 소개, 그림을 통한 명상-약수터, 생활전례, 독자들의 글, 덕진본당 전당공소 소개 등 다수확 재배를 위한 농사법 안내, 교회사-조상제사와 최초의 순교자들 편, 신부님들의 강론을 겸한 공소예절, 음력이 첨가된 축일표, 교구행사 및 교구소식 등이 실려있다.

홍보국 발행 가격 300원

※ 가정기도 독서: 전도서 12:13-14 복음: 요한 6:27-29

♣ 잠깐!

교구설정 50주년 기념 회보 발간

우리 교구는 자치교구 설정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회보발간 계획에 따라 그 창간호를 내게 되었다. 매일 1회, 첫주에 발간될 이 회보를 통해 50주년 기념 중앙위원회 활동과 50주년 기념 전반에 관한 보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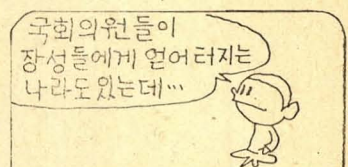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려는 기념사업 전반의 정기적인 보고는 물론, 50주년에 준한 교구내의 사목활동을 소개하고 교구내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의 50주년에 대한 관심사를 한데 모으는 새로운 장으로 꾸며지게 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좋은 제언을 기대하면서 이 한 장을 꾸미는데도 많은 이의 정성과 노력이 담으로 베어 있음을 생각하고 잘 읽고 보관토록 하자.

로사리오회 전국모임 성황리에 마쳐...

전국 내무공무원 신자들의 모임이 전주 해성학교 강당에서 있었다. 1977년 우리 교구에서부터 「로사리오회」라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내무부 관계 직장 안에서 신자 찾기를동부터 시작- 급기야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이제는 각 교구별로 그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년에 한번씩 전국 모임을 갖게 된 것.

이날 전국 각지에서 교구별로 모임 500여명의 회원들이 주제강연을 듣고 만남의 기쁨을 나누며 교구장 박주교님의 파견미사로 성황리에 마쳤다. 직장생활로 소홀해지던 쉬운 개인의 신앙생활을 더욱 심화시키고 직장 동료에 대한 전교활동을 벌이는 이 좋은 운동이 더욱 발전되길 바란다.

요십이 (669) 김병오



전주교구 울뜨레아

일시: 1986. 6. 6. 10시30분

장소: 전주 해성고 강당

회비: 2,000원

(중식·기념품 제공)

※ 참가희망자는 본당 회장에
에게 신일하세요

황수경 산부인과 의원

자궁암 검사. 질 성형수술

여 의 사
산부인과전문의 황 수 경

이 승 열(엘리아)

☎ 전주 2-7272

관동로 서울신학은행건너편 골목

조용하고 아늑한

남 고 산 장

연회석·주차장 완비

삼계탕·보양탕·추어탕·백숙·닭도리탕·숙회·
메기탕

봉고차 대기

좁은목 약수터에서 200미터

☎ 83-4108

이 아오스딩(중주) 팍 테레사(정옥)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이 곤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 1. 금주는 성체 주간입니다: 성체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모두 하나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2. 대의원 월례회: 오는 공식미사 후 각 구역장님, 사목회 임원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3. 본당 올드레아: 5일 저녁 성체강복 후 푸르실리스타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4. 예수성심회 월례회: 3일 어머니미사 후
5. 첫영성체 교리: 3일부터 매일 오후 4시~5시까지 부모님들의 관심있는 협조를 바랍니다
6. 본당 성지순례: 본당에서는 금년 순교자성월을 맞이하여 전신자들의 성지순례를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일정-9월 7일(일요일), 성지-충남 해미성지, 참가비-1인당 5천원(음료수, 의약품 및 기타), 차량 계약 관제상 6월말까지 접수를 마감합니다. 빠짐없이 구역장님께 접수하세요
7. 성모의밤 행사: 성대히 마쳤읍니다. 협조해주신 단체와 개인에게 감사드립니다
8. 공소 순회미사: 7일 저녁 8시, 다리리공소
9. 금주전례: 해설-전병주, 독서-봉헌-박종구 부부 신자기도-최재인 부부, 촛불봉헌-유점호 부부 차주전례: 해설-일영민, 독서-봉헌-신용진 부부 신자기도-최봉규 부부, 촛불봉헌-한갑용 부부
10. 모내기 봉사활동: 농촌의 바쁜 일손을 도읍시다 뜻있는 분들은 다음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503,545원 교무금: 562,000원 신축금: 172,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 1. 6월은 예수성심성월
2. 아치에스 행사: 1일(오늘) 공식미사 후 단원·예비단원·협조단원 참석
3. 꾸리아 임원개편: 단장-허순덕, 부단장-장옥남, 서기-정운주, 회계-최영숙
4. 어머니성가대 임원개편: 대장-조정숙, 부대장-안명자, 총무-신영희
5. 미사시간 변경: 새벽미사-5시30분, 저녁미사-8시
6. 감사: 주일학교 소풍에 수고하신 자모님들께
7. 이수녀님 피정: 4일~13일, 많은 기도바랍니다
8. 교리교사 체육대회(교구단위): 6일 성심학교에서
9. 제대회: 5일(첫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미사
10. 첫철례7: 7일 하오 8시
11. 꾸리아 회합: 다음주일(8일) 오후 2시
12. 성우회: 다음주일(8일) 공식미사 후
13. 감사: 주일학교 소풍에 의약품(상비약)을 제공하신 사회분과위원장(정성약국) 정성규씨
14. 전입자: 신제철씨 가족 5인, 안복철씨 가족 6명환영
15. 중·고생(학생회) 체육대회: 6일, 해성학교에서
16. 전주교구 올드레아: 6일 해성학교 강당, 참석바람
17. 금주청소: 월-평화의 모후pr, 토-구세주의 모친pr 차주청소: 월-사랑하오신 어머니pr 토-순결하신 어머니pr
18.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최희숙 ②천 건 봉헌-김정두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육경수 ②서남준 봉헌-김경조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84,760원 교무금: 563,950원

(삼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설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 1. 오늘은 교무금 납부주일: 매월 첫주일
2. 사목회 월례회: 6일 저녁
3. 교구 올드레아: 6일 오전 10시, 해성학교
4. 교리교사 체육대회: 6일 오전 10시, 성심학교

- 5. 학생체육대회: 6일 해성학교 교정
6. 갈당 및 사제관 보수공사 완료
공사현금을 신입 및 납부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110,730원 교무금: 25,000원 공사현금: 115,000원(5월 28일 현재)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 1. 제2성당 예비자교리반: 모집중이오니 많은 참여바람 사무실에 문의
2. 매주 수요일 저녁미사: 7시30분에 제2성당에 있음 본당 수요일 미사 없음
3. 제2성당 어린이 첫영성체: 대상-국민학교 3~6년, 일시-3월~20일 오후 5시, 사무실에 신청바람
4. 예비자교리: 학생-토요일 오후 6시 일반-주일 공식미사 후·화요일 오후 7시30분
5. 사제양성후원금 신입: 1구좌 2만원 ※ 1구좌 이상 신입도 가능함, 많은 참여바람 신입하신 분-문정수 1구좌 감사합니다
6. 레지오 옥외행사: 17일 오전 6시30분 충남 연평성지 순례
7. 자모회: 3일 오전 10시30분
8. 봉성체: 6일 오후 2시
9. 프란치스코 혈제회: 8일 오후 1시
10. 반장님 월례회: 8일 공식미사 후
11. 차주봉헌: 본당-김낙균 부부, 2성당-김길문 부부 차주봉헌: 본당-한형우 부부, 2성당-변두희 부부
12. 본당 공식미사: 해설-고복근·고정수 독서-①차상열 ②이정빈 2성당: 해설-문치구, 독서-①한상철 ②송남용
□ 지난주 봉헌금: 본당-289,115원, 2성당-91,030원 제-380,145원 미수금: 41,000원 교무금: 240,6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최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 ※ 6월은 예수성심성월입니다
1. 사목회: 공식미사 후 사목회 구역분과 부장-백안나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세요
2. 중·고생 1지구 체육대회: 6일, 해성학교 운동장
3. 전주교구 교리교사 단합체육대회: 6일 성심학교 운동장
4. 유아세례: 7일 오전 11시
5. 성마리아 꾸리아: 서기-윤말가리다 선임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6. 자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7. 교구 올드레아: 6일, 해성학교 강당
8. 주일학교 자모회: 3일 오전 10시30분
9. 성가정회: 1일 12시
10. 감사: 김현준-50만원, 스테인드글래스 대금
□ 지난주 봉헌금: 907,120원 교무금: 595,50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신
수녀원 2-4804

- 1. 사목방문: 3일 오전 10시-3단지 동원 3반
2. 주부 성서대학: 4일 오전 10시-마르코②
3. 사목회의: 7일 저녁 8시30분
4. 성모기사회: 7일 오후 1시30분
5. 중·고학생회: 이리 해화학교 방문-글라라 회원들 수고하였음
6. 감사: 철축 9주-십제순
7. 신축 동산성당 지원: 100만원
□ 지난주 봉헌금: 544,750원 교무금: 854,000원